

기획

광주일보 제6기 독자위원회 2차회의

일시: 2012년 5월 29일 장소: 광주일보 회의실

‘여수박람회’ 알찬 정보 큰 도움... 학교체육 보도 신경써야

강대석 (전 전남공무원교육원 원장)



주요현안 수면위로 끌어올려
지역발전 에너지로 만들어야

경 훈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여수박람회 문제점 공론화
관람객 불편 최소화

조미옥 (나주 영산포여중 교사)



사회의 가치 무조건 돈?
교육적 관점 제 목 선정을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근로시간단축문제에 대한
지역기업 입장 살펴야

안용덕 (조선대 체육대 교수)



체육면, 프로야구에만 집중
소년체전 개막소식조차 없어

▲강대석=최근 광주일보를 살펴보면 지난 회의에서 나온 여러 지적사항들이 지면 곳곳에 반영된 것을 봤다. 독자위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이번 회의에서도 가감없는 비판과 조언 부탁한다. 독자위원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광주일보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

▲경 훈=현재 이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여수세계박람회다. 행사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도 있어 보인다. 특히 관람객의 만족도가 낮아 보인다. 지난 27일 11만명의 인파가 몰려 1개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해 평균 7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한다. 또 편의 시설이 있어 박람회 대표전화번호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힘든 실정이다. 지역에서 치러지는 큰 행사이니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광주일보가 빠르게 공론화시켜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5월25일자 18면 ‘광주영상미디어클럽’ 관련 인터뷰 기사는 ‘어르신’들의 삶 이야기를 잘 다뤘다. 기사 내용 중 영상제작으로 수익창출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일보도 협약이나 사업협조를 통해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미옥=지역언론이 가장 크게 다뤄야 할 부분이 뭐가 고민을 해봤다. 이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키거나 열악한 사회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인권과 환경, 다문화에 대한 애정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지난 4월19일과 20일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특집기사는 알찬 내용으로 꾸며져 독자로서 만족스러웠다. 특히 ‘남도 근대화 탐사’ 시리즈는 지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여줘서 지역신문의 소명의식이 한층 부각된 느낌이었다.

입시관련 기사도 좋았다. 5월22일자 16면 ‘대입 스터디’ 기사는 2013년 대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입시체크 포인트를 잘 짚어 냈다. 아쉬운 점은 교육현장에서 NIE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는 데 신문 지면에서 학생들이 읽을만한 기사는 풍성하지 않다는 점이다.

5월24일자 1면 ‘전북이 바꾼 삶’ 기사는 완도와 관련된 심층 보도가 눈에 띄었다. 다만 이어진 3면 기사에서 ‘전북이 바꾼 삶~외제차 타고 골프 즐긴다’는 제목은 기사 제목마저 너무 물질문화에만 쫓아 든 거 같아 불편했다. 교육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회면에 되도록 훈훈하고 ‘착한’ 기사를 실어 청소년들이 신문을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강대석=교육적 제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사회의 가치가 무조건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제목 선정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윤영현=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보도 중 5월10일자 1면 ‘ 개막 코 앞인데, 인일한 조직위’ 기사는 구체적으로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운영 문제점을 짚어내 의미가 있었다. 다만 제목처럼 개막이 코앞이라 제시한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시간은 없어 보인다. 조금 더 앞당겨서 지면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근로시간단축문제 관련 내용이 기업들의 큰 화제였다. 고용노동부와 기업 간의 의견차가 커내다 정부 부서들끼리도 입장이 달라 오랜 기간 의견 충돌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냈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기업 입장을 대변할만한 기사가 실렸으면 한다. 노동정책에 대한 심

도있는 기사가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일자리 문제도 사회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자들의 일자리 찾기활동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사회공헌도 할 수 있는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위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정책 대안과 현실을 반영한 기사 게재 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안용덕=1차 회의는 해외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 때늦은 인사말을 드리지만 광주일보 독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점 영광스럽다. 열심히 하겠다.

광주일보는 스포츠 지면이 2면인데 아쉬운 점부터 말하자면 프로 야구에만 집중해 있다는 것이다. 광주일보 스포츠지면을 살펴보면 KIA타이거즈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광주FC와 해외와 야구, 해외축구, 국제대회 스타, 골프, 광주전남체육회 등의 순으로 기사가 나온다.

하지만 체육의 근간을 이루는 생활체육이나 소년체전 등의 소식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4일간 열렸던 제41회 전국소년체전만 해도 광주전남에서 2100여명이 참석했는데 개막소식조차 없어 아쉬웠다. 학교와 지역사회 밀착되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은 물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입장에선 지역신문의 무관심이 허탈할 수 있다. 한정된 지면이지만 다양한 종목에 대해 다뤄주라고 주문하고 싶다.

광주는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2015년이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다. 유망한 선수들을 신문에서 먼저 발굴하고 스타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는 올림픽의 해이기도 하다. 6월 중순이면 출전선수 명단이 확정되는 데 지역출신 선수와 관련한 올림픽 기사 부탁한다.

▲강대석=구체적 바랍 잘 말해주셔서 고맙다. 저도 한마디 하자면 지역신문의 역할은 뉴스 전파도 중요하지만 지역현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지역발전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 가장 크다. 여수세계박람회 보도는 타 신문에 비해 지면을 잘 활용하고 세세한 분석기사도 많이 만족한다.

▲노미향=다른 분들도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 여러 말씀 하셨지만 최근 지역에서 가장 큰 행사이니 저도 말씀드리자면 광주일보의 여수박람회 관련 보도는 단연 지역에서 일등인 것 같다. 특히 관람객을 위한 알찬 정보가 정말 많다. 1면에 매일 나오는 오늘의 박람회 소식은 관람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 4월20일자 창사 60주년 관련 특집중 흑백사진들을 보면서 새삼 ‘광주일보가 60년이나 지역에서 함께 보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지난 19대 총선관련 보도 중 지역과 관계된 하지만 너무 민주통합당 후보 위주로 지면이 할애되지 않았나 싶다. 다가오는 대선보도에서는 출마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생각과 바람을 조금 더 많이 실어주라고 요구하고 싶다.

▲천성권=지역 일간지는 그 지역 신문이긴 하지만 타 지역에서 또 그 지역의 여론과 현안을 위해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중인 이혜찬 후보가 충청도가 고향인데 그 지역에서 이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까이서 살펴기 위해 대전정보를 볼 수도 있다.

또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정치적 이슈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

노미향 (광주지역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

대선팬 출마자들보다
유권자들의 생각 담았으면



천성권 (광주대 학생지원처장)

지역현안 살필 중요한 지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집중



김윤하 (전남대병원 홍보실장)

총선보도·기획기사 좋아
광고·기사 배치는 신경써야



해 타 지역 신문을 볼 때가 있다. 이런면에서 지역 언론은 객관적인 뉴스 전달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여론을 기사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했듯이 타 지역에서 지역여론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언론이니 지역의 여론을 지면에 반영하는 부분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윤하=지난 19대 총선 관련 보도는 다음날 다른 신문과 크게 차별화된 정도로 잘 꾸려졌다. 정확한 당선자 인원 수와 전국 당선자에 대한 소개 등은 거의 중앙지급이었다고 평가한다. 창사 60주년 지면은 광주일보 장점을 잘 드러낸 종합판이었다고 생각한다. 기획기사의 마무리 시점까지 짚을 유지했으면 한다.

반면 편집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여전히 지면을 펼치면 어지럽다는 느낌이다. 정리가 안돼있고 깔끔함이 부족하다. 광고와 기사의 배치에 신경썼으면 한다. 지난 5월22일자 1면 ‘영광원전’ 관련 기사 등 지역민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내용은 사실상 나열하지 말고 대책 마련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정리=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발전과 고약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답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인동상일부동산 호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첨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기중!》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분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257평 -연면적: 900평